

IV. IMF 시대를 넘는 지혜

1. 외국인 눈에 비친 비합리적인 경제 관행

IMF 위기로 인해 우리는 급격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경제 구조 개혁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변화는 합리성이 결여된 경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소비 행태의 건전화 등을 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나 정책이 바뀌어도 이를 수행하거나 받아들이는 주체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도와 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외국인들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비추어지는 관행이 있다면 이는 제도나 정책 못지 않게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제도나 정책은 그 불합리성이 가지적으로 드러나지만 관행은 쉽사리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그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 외국인 투자의 부정적인 시각

우리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자주 지적되었던 사항이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자국에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官民이 협력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 자본 유입이 마치 국부 유출과 직결된다는 시각에 젖어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억제해왔다. 이러한 국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외국인 투자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어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 및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던 점도 너무 편협한 사고라고 외국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는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밖으로의 세계화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접근 허용과 같은 안으로의 세계화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Contestability)을 심화시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순히 자본을 투자하는 것 이외에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진출과 관련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관

런 행정 담당자들의 관료적인 사무처리 방식이다. 최근 다우코닝의 국내 투자 포기는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정보 공개 기피증

1997년 외환위기가 심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주장하였던 것이 정확한 정보의 공개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각종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면서 외환위기가 더욱 확산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정보 공개 기피증은 국가 및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회계 장부 및 각종 통계를 믿을 수 없어 투자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어떤 부문이 부실하고 어떤 부문이 건실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투자도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다.

□ 내실보다는 외형을 선호

미국의 주가는 매출 규모보다는 수익성이나 성장 잠재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즉 아무리 규모가 큰 기업이라도 수익성이 없으면 주가가 하락하고 결국 도산하게 되고 만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규모가 기업을 평가하는 자대로 사용되어왔다. 현재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국내 주식들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익성이나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들이다.

□ 약속의 남발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외국인들의 시각이다. 물론 이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유교적 도덕 가치를 숭상했던 우리의 경우, 계약이나 제도보다는 상호 인정과 믿음을 통해 사회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개인의 경우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인해 두 사람에게 서로 상반된 약속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문화적 가치관의 발로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약속은 그 의미나 효과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약은 법적 구속력보다는 우리의 신뢰나 믿음을 대신하는 사회 유지의 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또한 시장 개방화로 인해 국내외 시장이 구분이 없는 진정한 자유 경쟁 시장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아무리 제도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최근 산업자원부 주최 미-유럽 기업인 간담회에서 지적되었듯이 외국 기업가들은 아직 경제 개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개혁만이 개혁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일 것이다. 아무리 제도를 개선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 하여도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인식 전환이 없이는 건실한 외국 자본 유입은 요원할 것이다.

(양 두 용 yangdy@hri.co.kr ☎724-4057)